

# 처용과 아기장수의 문학적 변용에 담긴 비극성

- 60년대 이후 모더니즘 문학을 중심으로 -

한순미(전남대)

## < 목 차 >

- |                              |                          |
|------------------------------|--------------------------|
| 1. 시대문턱으로서의 4·19혁명, 전통이라는 화두 | 3. 아기장수의 변용에 드러난 비극성의 다층 |
| 2. 상실감의 징후, 처용               | 4. 반성과 과제                |

## 1. 시대문턱으로서의 4·19혁명, 전통이라는 화두

혁명은 완성의 형태이든 미완의 것이든 한 시대의 감성에 잔잔한 파문(波紋)을 새긴다. 하지만 혁명은 차츰 그 순간의 사실성과 결별한다. 즉 이미 지나간 과거로서의 혁명은 사실 자체로 어떠한 의미도 지닐 수 없는 텅 빈 기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적 텍스트로 남게 되는 시대경험은 그 시대를 직접 살고 겪은 자들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 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의 경험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언어화하는 과정에 의해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물러난 추상화된 형태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의 생생한 감성구조와 감성표현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이미’ 그 시대의 것일 수 없다. 사후적인 재구성으로 그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생각이 회의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태도를 더욱 뚜렷하게 가질 때, 시대결정론이나 본질주의적인 태도로 시대의 감성적 영역에 접근하는 방식을 벗어날 수 있다.

알다시피 4월혁명은 이 시기 작가들의 문학적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한 문화사적 사건으로서 세대의 단절, 세계관의 변모, 정체성의 혼란 등 연속적인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와 가능성의 세계를 동시에 사유하도록 하는 가운데, ‘상실’과 ‘기다림’이라는 이중적인 감성구조를 낳았다. 따라서 4·19라는 사건은 이중의 형상을 한 ‘괴물’처럼도 보였다.<sup>1)</sup> 이 시기를 겪은 문학은 상실과 기다림, 좌절과 기대라는 이중적 감성의 사이를 건너지 않기 위한 노력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60년대 작가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껴안아야 할 시대적인 고뇌이자 문학적 조건이었다. 말한 것처럼 4·19혁명은 이전 세대와의 뚜렷한 단절을 가져온 문학적 감성의 전환점이자 한국문학의 흐름에서 새로운 문학적 고뇌를 생성시키고, 미적 변모를 야기한 ‘시대문턱’<sup>2)</sup>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은 이 시기의 작가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였다.<sup>3)</sup> 이 시기의

- 1) 60년대 문학의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김현은 4·19의 문화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는 사일구의 성공적 측면에서 연유하는, 가능성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하나일 수 있다는 긍정적 얼굴이었고, 또 하나는 사일구의 부정적 측면에서 연유하는, 이상은 반드시 현실의 보복을 받는다는 부정적 얼굴이었다. 사일구의 그 두 얼굴을 동시에 바라다본 사람들에게 사일구는 괴물처럼 보였지만, 그것의 한 면만을 바라다본 사람들에게 사일구는 각각 환희와 절망을 뜻하는 것이었다.”(김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방』, 문학과지성사, 2003, 239면) 즉 4월혁명의 경험은 가능성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미래의 지평을 여는 ‘웃음’을 주는 한편, 이상과 꿈은 그대로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현실의 보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에서 ‘눈물’을 가져다주었다.
- 2) ‘시대문턱’이라는 용어는 H. 로베르트 야우스의 『미적 현대와 그 이후-루소에서 칼비노까지』(김경식 역, 문학동네, 1999, 85-130면)에서 가져왔다. 야우스는 ‘시대문턱’이라는 개념으로 서구의 미적 현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논의에 따르면 서구 미학사의 전개는 18세기 중엽의 시대문턱,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의 문턱, 1848년 이후의 문턱, 1912년경, 탈현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최근의 시대문턱 등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4·19혁명을 한국문학사에서 미적 전환을 가져온 경계지점으로 보고,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
- 3) 1960년대에는 한국민속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족문화적 성격을 찾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고전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정병우, 구중서, 임중빈 등) 실학정신과 ‘연암’ 문학을 부흥을 꾀하고자 하여 국문학의 미적 특질로 골재미와 풍자정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지하와 조동일은 전통적인 한, 슬픔 등 비애미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작가들은 전통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사유함으로써 이전 세대의 전통론이 고유한 ‘조선적인 것’ 혹은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 한 나머지, 일종의 복고주의나 숭고주의에 머물렀던 것과는 다르게 전통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이를 수 있었다.<sup>4)</sup>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작가들은 한국, 그리고 동서양의 전통을 모두 다시 검증해야 할 대상을 놓음으로써 전통을 단지 소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대경험을 해석하는 준거점으로 삼거나 작품의 주제의식, 문체나 형상화의 근본 동력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60년대 이후 작가들에겐 ‘전통의 수용’이라는 말보다 ‘전통의 번역’ 혹은 ‘전통의 변형’, ‘전통의 새김[釋]’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또 하나 덧붙일 점은 작가들마다 전통을 새기는 방식과 토대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모티프의 변용에 있어서도 ‘변별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이 글에서는 60년대 초입에 일어난 4월혁명의 경험과 이후 모더니즘 문학에 드러난 ‘비극성’<sup>5)</sup>의 관계를 ‘전통’의 변용 양상을 통하여

속에서 민요의 해학성을 강조하고 중세 평민문학을 재평가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학계나 지식인들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던 ‘근대화’나 ‘한국학’은 쿠데타 세력의 집권과 개발독재의 명분이 되기도 했는데, 70년대에 ‘한국적 민족주의’라는 기이한 용어가 출현한 것도 이러한 점을 증거한다. (『증언으로서의 문학사』(강진호, 이상갑, 채호석 편), 깊은샘, 2003, 235-287면, 393-444면, 그리고 「좌담 :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4월혁명과 한국문학』(최원식, 임규찬 편), 창작과비평사, 2002, 19-67면을 참조) 뿐만 아니라 1962년 일본 동경에서 창간된 제일교포잡지 『한양』을 비롯한 『청맥』 등에서 옛보인 전통론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50집, 민족어문학회, 2004, 287-325면)

- 4) 더 섬세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조선적인 것’의 표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갔던 <문장>과 문인들의 골동품적 숭고주의(崇古主義)는 ‘신라혼’, ‘신라정신’, ‘선비문화’ 등과 같이 어떤 본질적인 전통을 그것 자체로 계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역사의식의 결여로 식민지시대 메카니즘을 재생산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다. 자세한 논의는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화담론』(소명출판, 2007)을 참조.
- 5)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극성’은 곧 ‘유토피아’, 혹은 문학적 구원에 관한 문제의식까지를 포함한다. 문학에서 비극성을 진지하게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유토피아를 방법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학작품에서 화해의 경지와 유토피아적 전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비극적인 성격은 동시에 시대적인 한계와 금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60년대의 한계는 소정의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읽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60년대 모더니즘 작가들이 어떠한 미적 태도 하에서 전통적인 모티프를 선택하고 변용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sup>6)</sup> 그 중에서도 비극적인 설화인물 ‘처용’과 ‘아기장수’를 변용하고 있는 작품들을 읽어봄으로써 4·19혁명 이후 작가들의 전통수용에 담긴 비극성을 시대적인 맥락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7)</sup> 이 글에서는 시, 소설, 희곡 등 여러 작품들을 두루 살피면서 동일한 모티프의 변용에 나타난 비극적 세계인식과 작가들의 감성적 편차를 폭넓게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춘수와 김현의 작품에서의 처용, 그리고 김승옥, 최인훈, 이청준의 작품에서의 아기장수 이야기의 수용 양상을 검토하여 4월혁명 이후 모더니즘 문학에서의 전통 변용의 다층과 비극적인 시대경험을 함께 들여다보는 데에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작가들의 전통 변용의 맥락과 비극적인 세계관, 그리고 시대경험의 심층적 연관성이 드러나길 기대한다.

---

역사 조건의 중압 때문에 이를 재구성할 종말론적인 물음과 대답이 불가능했다는 데 있었다. 이들에게 목적론적 논의는 타부에 속하는 일이었다.”(송상일, 『60년대, 시민문학의 형성』, 『시대와 삶』, 문장사, 1979, 107면).

- 6) 이들은 근대 문학인들이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을 수입했던 것과는 달리 동서양의 철학과 문학을 ‘매개항 없이’ 직접 받아들여서 전범으로 삼았던 문학 세대로서, 과거의 문학적, 문화적 전통과 유산들을 다 함께 수렴하여 전혀 다른 문학적인 전통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는 분명하다. 가령, 이청준은 한국의 무속과 판소리 전통을 토대로 토마스 만과 카프카 등의 독문학과 접점을 형성했고, 서정인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동서양의 사상, 서양의 알레고리와 유가의 ‘정명론’을 바탕으로 한 우연적 요소가 강하다. 박상룡은 동서양의 전통을 독특한 시각에서 해석하여 이질적인 문학적 전통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점은 이 시기의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들과 대비하여 보면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7) 처용과 아기장수는 60-70년대에 국문학, 민속학, 역사학, 인류학 등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처용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는 현용준, 『처용설화고』(1968), 이우성, 『삼국유사소제 처용설화의 일분석』(1969), 김열규, 『처용전승시고』(1971), 『처용전승고』(1977), 이두현, 『처용가무』(1977),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1980) 등이 있다. 아기장수에 관한 초기의 논의 중에서는 심정섭, 『전설의 문학적 구조-아기장수전설을 중심으로』(1977), 최래욱,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1979), 현길연,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을 중심으로』(1979), 조동일, 『진인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1981)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을 다시 읽는 것은 문학의 근원적인 힘인 ‘상상력’을 통해서 변화하는 현실사회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역동적인 방식의 하나이다. 그런 과정에서 문학은 전통적인 원형의 구조적인 역사를 수렴한다. 다시 말해 “상상력의 세계가 다루는 감성적 소재는 확실히 현실의 소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거꾸집 속에 다시 녹여 주조된 것이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중요한 구조들이”다.<sup>8)</sup> 즉 문학적 상상력은 감성적인 소재를 구조적인 차원으로 주조하여 현실사회에 대해 역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견해에 의지해볼 때, 처용과 아기장수 설화 등 전통 모티프를 문학적 상상력의 밑바탕으로 삼고 있는 작품들을 비교해보는 일은 ‘상상력’을 통해서 시대의 감성표현과 감성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특히 60년대 이후 모더니즘 문학에서 관심있게 읽고 있는 처용과 아기장수 설화는 본래의 이야기가 지닌 비극적인 요소로 인해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시대경험과 친연성을 지닌 전통 모티프라 여겨진다. 따라서 모더니즘 문학에서의 처용과 아기장수의 변용 양상에 대한 검토는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비극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다.<sup>9)</sup>

## 2. 상실감의 징후, 처용

잘 알다시피, 김춘수는 신라의 인물 처용을 시적 모티프로 하여 지속적인 창작을 해온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는 『타령조·기타』(1969)에서 『처용단장』(1991)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이 넘는 동안 처용을 주요한 시적 모티프로 삼아 왔다. 그런데 김춘수의 처용 시편들은 《삼국유사》의 ‘처용랑과 망해사조’에 실린 처용 설화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만큼 김춘수에게 처용은 원형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감성적인 차원에서 변용된 ‘이미지’로

8) L. 보이아, 김웅권 역, 『상상력의 세계사』, 동문선, 2000, 33면.

9)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품들 외에도 처용과 아기장수를 모티프로 한 현대문학작품들은 많이 있을 줄 안다. 앞으로 관련된 여러 작품을 포함하여 논의를 확장해보고, 가능하다면 이 시기의 리얼리즘 문학에서의 전통 변용 양상들과 함께 비교해볼 계획이다.

수용된다. 그러한 변용의 논리는 그의 무의미시를 이루는 시적 논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다음은 처용을 모티프로 한 몇 편의 시를 발표순에 따라 옮긴 것이다.

① 내 사랑은/ 서해로 갈까나 동해로 갈까나/용의 아들/라후라(羅喉羅) 처용아빌  
찾아갈까나/엘리엘리나마사박다니/나마사박다니, 내 사랑은/먼지가 되었는가 티끌  
이 되었는가, 골러가는 역사의/차바퀴를 더럽히는 지린내가 되었는가/구린내가 되었  
는가, -「타령조·2」부분

② 인간들 속에서/인간들에 밟히며/잠을 깬다/숲속에서 바다가 잠을 깨듯이/깊고  
튼튼한 상수리나무가/서 있는 것을 본다/남의 속도 모르는 새들이/금빛 깃을 치고  
있다. -「처용」전문

③ 그대 순결은/형(型)이 좀 틀어지긴 하였지만/그러나 그래도/그대는 나의 노래  
나의 춤이다 -「처용 삼장-1」부분

④ 매콩강은 흘러서 바다로 가나,/매콩강은 흘러서 바다로 가나/부산 제일부두에  
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다./가을이 오면 어디로 가나./가을이 오면 어디로  
가나./여름을 먼저 울자, 여름을 먼저 울자. -「잠자는 처용」부분

⑤ 돌려다오/불이 앗아간 것, 하늘이 앗아간 것, 개미와 말뚝이 앗아간 것,여자가  
앗아가고 남자가 앗아간 것,앗아간 것을 돌려다오./불을 돌려다오. 하늘을 돌려다오.  
개미와 말뚝을 돌려다오./여자를 돌려주고 남자를 돌려다오./쟁반 위에 별을 돌려다  
오./돌려다오.(「처용단장 제2부-1」전문)<sup>10)</sup>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춘수의 처용은 처용설화의 내용을 파편적인 이미지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처용」의 전문에 드러나 있듯, 처용의 모습은 인간들 사이에서 짓밟히면서 잠을 깨는 소외된 존재로 그려져 있다. 처용의 존재론적 비극성은 “역사는 나를 비껴가라./아니/멧돌처럼 단숨에/나를 으깨고 간다”는 구절에서처럼, ‘나’는 다만 한 개인이 아니라 폭력적인 역사에 희생된 무수한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역사 속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노래 나의 춤이다”라는 달관의 태도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춤과 노래로 치유하고자 한다.<sup>11)</sup> 그런 점에서 김춘수의 처용 해석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이상적인 자아

10) 위의 시는 『김춘수 시전집』(현대문학, 2004)에서 인용.

11) 처용과 관련된 작가의 말은 「대상·무의미·자유 줄고」한국현대시의 계보」에 대한 주석,

형성으로 인한 현실도피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인식론적 대응이 미약할 뿐 아니라 역사의식이 소멸된 채 성급한 화해의 몸짓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12)</sup> 그런데 김춘수의 처용 해석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하나의 모티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변주해내는 시적 과정이 곧 사회문화적인 상황에서 겪는 정신적인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면서 그 지속성의 심층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리 보면 김춘수는 처용의 모티프를 지속적으로 변주하는 방식으로 어떤 화해의 지점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대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춘수의 처용은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를 자꾸 환기시키는 정서적 매개물에 가깝다. 또 처용 시편들에 흐르는 주요한 정조는 짓밟히고 빼앗긴 고통스러운 존재의 상실감, 눈물, 죽음 등의 비극성이다. 그러므로 김춘수의 처용은 신라의 처용에게서 달관의 경지를 읽지 않았고, 인신(人神)의 경계에 있는 처용의 고통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처용의 고통을 매개로 하여 보다 넓은 비극성의 세계를 담아낸다. 고통에 찬 처용의 모습은 유년의 아픈 기억에서부터 세계의 폭력성을 전반적으로 드러내면서, 세계와의 불협화음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한다. 따라서 김춘수의 처용은 이중섭, 예수, 천사 등의 인물형상과 함께 인간과 신적인 존재 사이에 있는 ‘경계인’의 비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처용은 고통과 수난을 겪는 존재의 상실감을 대표하는 징후의 형상이다.

다음으로 김춘수의 처용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처용을 주인공의 심리적 상관물

---

(521-541면), 「「처용·기타」에 대하여」(632-639면), 「「처용삼장」에 대하여」(644-649면) 등의 글을 참조(『김춘수 시론전집1』, 현대문학, 2004). 그중에서 「처용단장」에 대한 작가의 주석을 보면 변용의 심리적 근거를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처용은 나의 유년 모습이었다.(…) 10년 전에 처용은 어떻게 나에게로 왔을까? 그는 동해 용의 아들이다. 그렇다. 나는 바다가 되어버린 것이다.(…) 처용은 어느새 나와 화해하고 있었다. 그런 처용에게는 윤리도 논리도 심리의 음영조차도 없었다. 그는 다만 환한 빛이었다. 때로 그 빛에 쓸쓸한 그들이 지는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그들도 곧 흔적을 지우곤 하였다. 나는 보았다. 내 속에 있는 한 사람의 타인을!”(「처용, 그 끝없는 변용」, 『김춘수 시론전집 II』, 현대문학, 2004, 148-153면)

12) 임동화, 「무의미 시론과 “처용”과 “천사”의 변주」, 『시학과 언어학』 8집, 시학과 언어학회, 2004, 35-62면.

로 다루고 있는 김현의 소설 「잃어버린 처용의 노래」를 들 수 있다. 비록 이 작품은 《산문시대》장간호(1962)에 실린 한 비평가의 습작소설이어서, 내용과 구조면에서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당시의 어두운 내면과 상실감을 처용의 심리에 빚대고 있어 흥미롭다. 소설의 내용은 ‘나’의 피곤한 심리상태가 주를 이루는데, 그 속에 ‘나’와 K형, 그리고 ‘안’이라는 여인을 둘러싼 애정의 삼각관계가 들어있다. ‘나’는 결국 K형과 안이 동침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극도의 상실감을 호소한다. 소설의 끝부분인 다음의 문단에서 잘 읽을 수 있다.

다다의 노래가 생각키웠다. 방문을 조심해서 닫았다. 예수의 얼굴이 생각키웠다. 처용의 얼굴이 생각키웠다.

그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춤추며 나가는 처용의 얼굴이. 나도 춤을 추어야겠다. 처용의 웃음을 웃어야겠다. 예수의 낙서를 시작해야겠다. 문을 나서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올해 처음 오는 눈이었다. 입에서 곧 피가 나올 것 같았다. 숫처녀의 초경이 나에게 매력이자. 나는 앓는다. 입을 벌린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눈이 더 많이 더 많이 내린다. 눈아 하늘을 뿌리뿔을 듯이 내려라. 땅 위를 덮어라. 내 창자를 빼내어 내 간(肝)을 빼내어 피를 토하마. 우리 같이 숫처녀의 초경을 생각하자. 다다의 노래를 부르자. 나는 이렇게 처용의 호방한 춤을 추기 위하여 여기 앉아 있다.

—백색 지대 위에선 바쁘게 살 수가 여영 없나봐! 탈모(脫毛)는 자꾸만 계속되는 데……

최형! 영화 재미있습디어? 기분과 O형! 울지 말게. 레지가 갔으면 이제 여름방학이 있지 않는가. 미스 안 은행에 나가 응! K형 그렇게 죄스러운 표정을 짓지 마시오. 전부 다다의 노래를 부르세요. 처용의 춤을 추세요. 눈이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펑 돌았다. 무엇 때문인지 몰랐다.<sup>13)</sup>

항상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나’는 결국 마음을 품고 있던 ‘안’이라는 여자를 ‘K형’에게 빼앗기고 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나’의 상실감은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긴 신라의 처용의 마음과 동일시되고 있다. 사랑의 감정에 쉽게 자기 자신을 허락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한 질투조차도 느끼지 않으려는 ‘나’의 심리 상태는 곧 정신적인 가치관의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나’의 ‘백색 지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신라의 처용이 그랬듯이 노래와 춤으로 그러한 상실감을 달랠

13) 김현, 「잃어버린 처용의 노래」, 『자료집』(김현문학전집16), 문학과학사, 2005, 147면.

수밖에 없다는 체념과 허무의식이 짙게 들어 있다. ‘나’의 얼굴은 곧 고통과 수난을 겪는 “처용의 얼굴”이자 “예수의 얼굴”로 오버랩되며, ‘나’가 부른 노래는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는 ‘다다’의 노래이다.

이상에서 읽은 바와 같이, 김춘수와 김현의 처용은 아내를 빼앗기고 상실감에 젖었던 신라의 처용을 매개로 하여 시대와의 불협화음을 전하고, 상실감과 허무의식을 깊게 보여준다. 아울러 신라의 처용에게 일어난 불행이 한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가족 질서의 파괴, 국가의 존망 위기와 직결되었던 중대한 사건인 것처럼, 김춘수와 김현의 작품에서 처용은 개인과 시대의 비극적인 상실감을 동시에 조명하는 구실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문학은 신라의 처용이 비극적인 상황을 춤과 노래로 달래는 방식, 즉 “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제의적인 것”<sup>14)</sup>인 해결방식을 보였던 것처럼, 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제의적인 처용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작가들에 의해 변용된 처용 모티프는 시대를 겪는 존재론적 상실감과 고통, 그리고 문학론의 심층을 하나로 연결하는 매듭이다.<sup>15)</sup>

김춘수의 처용시편은 처용설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여 유년의 상처와

14) 그 해결은 “침략자와 침략 당한 자 모두 상처를 입지 않는 해결, 다시 말해 갈등 이전의 상태로 복원됨은 말할 것도 없고(대개 정치적 법적 해결은 그 해결 자체가 많은 상처를 남기므로 근원적 해결에 이르기 어렵다)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갈등도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것이다. 역신은 앞으로 처용의 형상을 보기만 해도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함으로써, 노래와 춤의 힘이 얼마만큼 위력적인가를 보여 준다.”(송효섭, 『초월의 기호학-뫼토스와 로고스로 읽는 『삼국유사』』, 소나무, 2002, 120면)

15)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처용설화 전체의 숨은 문맥을 주의하여 읽었을 때 처용설화와, 작가의식과 문학관 등과의 내적 연관성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일 연, 이기원·허경진 역, 『삼국유사』, 한길사, 2006, 167-171면) 처용설화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상(象)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리라는 예시를 주는 징후를 뜻하며, 신들의 춤(舞)도 그러한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표지로서 처용설화에서 왕과 처용이라는 사면적 존재만이 그것을 미리 읽고 처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 이렇게 볼 때 처용설화의 서사전개는 징후의 나타남, 징후의 해독, 치유의 과정, 치유의 결과와 효과 등을 따른다. 불행을 미리 알고 그것을 치유하고 처방하는 자로서의 처용의 모습은 불행한 시대적 징후를 읽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모습과 그리 멀지 않다.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훼손된 인간존재의 상실감을 비춘다. 김춘수의 처용해석은 그러한 비극적인 고통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매개물로 선택됨에 따라 상실감의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을 여전히 불가능한 영역으로 남겨둔다. 김춘수의 처용은 김현의 습작소설 『잃어버린 처용의 노래』와 함께 인간존재의 총체적인 위기, 그리고 상실감과 허무의식을 드러내는 시대적 징후라 할 수 있다.

### 3. 아기장수의 변용에 드러난 비극성의 다층

아기장수 설화를 색다르게 변주하고 있는 다음의 세 작품, 김승옥의 단편 「역사(力士)」(1963), 최인훈의 희곡 「옛날 옛적에 휘어어 휘이」(1976), 이청준의 장편 『신화를 삼킨 섬』(2003)은 아기장수 이야기의 원형을 해체하고 그것을 다시 구조적으로 재결합하고 있다.<sup>16)</sup> 이들 세 작품들은 시대적인 편차가 있음에도, 같은 시대경험을 지닌 작가들이 어떠한 맥락으로 동일한 전통 모티프를 수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변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이점을 준다.

먼저 김승옥의 단편 「역사」(1963)에는 본래의 아기장수가 지닌 존재의 비극성을 그대로 잇고 있는 ‘서씨’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서씨는 중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 그들의 조상들 중에는 중국에서 이름난 장수들이 많았다. 그러나 서씨의 불행은 그가 장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그러한 힘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나 이 서씨에 와서는 그 힘이 재산이 될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그 힘은 서씨로 하여금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밖에 가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서씨는 그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하기로 했다. 남만큼만 벽돌을 날랐고 남만큼만 땅을 팠다. 선조의 영광은 그렇게 하여 보존될 수밖에 없었다.

16) 여기에서 거론한 소설들 외에도 아기장수를 모티프로 한 황석영의 「壯士の 꿈」(1974), 송기숙의 「우투리」(1987), 한승원 『우리들의 돌탑』(1989) 등의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의 변용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씨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 한밤중을 택하여 동대문의 성벽에서 그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명부(冥府)의 선조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낮에 서씨가, 동대문의 바로 곁에 서서 행인들 중 누구 한 사람도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 한 개의 위치 변화에 관심을 보내지 않고 지나다닐 때, 옮겨진 돌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씨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였고 내가 그와 접촉하면 할수록 빨리 들어갈 수 있었던 깊이였던 모양이었다.<sup>17)</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서씨의 조상들은 그러저럭 장수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반면, 서씨는 전설적인 영웅인 아기장수와 같은 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더욱 비극적인 처지인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서씨가 물려받은 고유한 힘은 이미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씨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한밤중에 혼자 돌을 옮기면서 그 힘을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애쓸 뿐인 쓸모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밤중에 혼자서 성벽의 돌덩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방식, 즉 “고담(古談) 같은 데서 등장하는 역사(力士)”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서씨의 모습은 오히려 ‘나’에게 “안주(安住)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105면)도록 요구하는 힘으로 느껴진다. 서씨의 태도에서 ‘나’는 “몽상적인 의미에서의 성실”을 읽고, 그것을 빈껍데기와 같은 “양육집의 생활을 비판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106면)하는 성찰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김승옥의 「역사」는 아기장수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과 교환가치로 환원된 자본주의 현실의 비극성을 동시에 들춰내고 있다. 전설 속의 아기장수가 태어나자마자 권력적인 지배자에 의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였다면, 김승옥의 아기장수는 아기장수의 반역을 미리 차단시키는 권력자의 자리에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폭력성을 갖다놓음으로써 자본주의적 근대를 비판하고 있다. 김승옥 소설의 아기장수 변용 양상은 다음에 살펴볼 최인훈의 경우와 대비시켜볼 때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7) 김승옥, 「역사(力士)」, 『무진기행』, 문학동네, 2004, 104-105면.

소설에서 회곡으로 장르의 전환을 시도한 최인훈은 전설의 비극성을 회곡 장르가 지닌 양식과 접목시킴으로써 비극적인 세계관을 구조적으로 형상화하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한 시도는 한국적인 심성의 근원, 문화사적인 탐구로서의 소설, 한국 정신사의 탐색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작가 최인훈의 작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회곡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1976)는 아기장수의 이야기를 구조적 차원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다시 아기장수와 같은 존재를 맞이할 “인간의 태도”에 관한 물음으로 확장하여 다룬다. 즉 최인훈의 아기장수 이야기는,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아닌 인간의 ‘운명’, 즉 인간의 이기지 못한 ‘자연’ 곧 ‘마음’에 관한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틀로 수용된다.<sup>18)</sup> 이 극의 마지막 대목을 읽어보자.

사람들 :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  
 사람들, 어느덧 손짓 발짓 장단 맞춰 춤을 추며, 어갯짓 고갯짓 곁들여, 굿 춤추듯,  
 농악 맞춰 추듯, 춤을 추며  
 하늘에서 : ……보채면서  
                   자란애기  
                   흉년들면……  
 사람들 : 휘어이 휘이, 다시는 오지 말아, 휘어이 휘이<sup>19)</sup>

위에서 인용한 마지막 대목은 아기장수를 하늘로 보내는 이별 장면이다. 이 장면의 비극성은 아내의 “천천히 슬프게” 부르는 노래가락(“우리애기 축한애기/젓은 먹고 크는애기/보채면서 자른애기/흉년들면 도적되지요//도적되면 넓은세승/오

18) 문답 형식을 취한 작가의 생각을 옮겨보면, “문: **운명**은 내적인 것입니까?/답: 내적도 외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한 자연과 일을 내적 운명이라 부르고, 이기지 못한 것을 외적 운명, 또는 그저 운명이라고 흔히 부르지요./문: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기지 못한 **자연**의 이야기군요./답: 이기지 못한 우리 **마음**의 이야기이지요./문: 마음의?/답: 마음은 자연입니다./문: 무섭고 슬픈 애깁니다./답: 그것이 극입니다.”(최인훈, 「대화-「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에 대해」,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문학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3, 367-368면, 강조는 필자)

19)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문학과지성사, 2004, 120-121면.

도굴데 없어지고/관각기둥 높은곳에/잘린토막 머리되어/뚜둑뚜치 쪼아대면/엄므  
 으프 누으프/우는신세 되는신세/아이무서 다른애기/우리애기 으닌애기.”)이 희곡  
 전체에서 반복되면서 점층적으로 고조된다. 이 노래는 아기장수가 이미 타락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즉 “흉년들면 도적되”는 세상에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태어나자마자 예정된 결과라는 비극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아기장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온 하늘사람임에도, 결국 사람의 잘못된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이다. 바꾸어 말해  
 인간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아기장수라 할지라도, 인간들의 마음이 그를  
 맞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죽음은 달리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극의  
 마지막 대목은 하늘에서, 그리고 지상의 사람들이 모두 아기장수에게 이 세상으로  
 “다시는 오지 말아”라고 기원하면서 비극성을 더한다. 이로써 최인훈의 아기장수는  
 지금 여기의 현실과 인간의 마음상태가 아기장수와 같은 미래의 구세주를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구상태임을 말해주며, 아기장수와 같은 존재에 의한 미래에의  
 구원은 멀고 먼 인간의 숙제로 남기고 있다. 우리의 손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아기장수는 곧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드러낸다.

김승옥과 최인훈의 아기장수가 현실의 비극적인 상황과 구원 불가능성을 이야기  
 한다면, 이청준의 경우는 비극적인 조건 위에서 그 비극성을 넘어설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모색한다. 이청준의 장편 『신화를 삼킨 섬』은 아기장수 설화를 소설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배치하여, 설화의 내용을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 상징장  
 치로 수용하고 있다. 이청준 소설의 아기장수 이야기는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아기장수 이야기를 서로 엮어서 만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다른 지역의 것과 다르게  
 아기장수가 죽지 않고 날개를 잘린 채로 살아간다는 제주도의 아기장수 설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sup>20)</sup> 이것은 또한 작가의 문학론을 이루는 핵심적인 모태이다.  
 다음을 읽어보자.

(...) 그때 어디선지 다시 슬픈 말울음 소리가 세 번 울리더니 갈라진 용마 바위

20) 현길언,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7·18집, 한국언어문학회, 1979, 289-306면.

뒤쪽에서 눈부신 날개를 단 용마 한 마리가 불쑥 솟구쳐 올라 뒷산 너머 하늘로 멀리 사라져갔다. 새로 태어날 장수를 태우러 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용마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후부터 아기장수도 용마도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영웅 장수나 용마의 희망에 속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그 구세의 영웅 이야기를 잊지 못했고, 언제부턴지 그 아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sup>21)</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청준은 아기장수의 죽음으로 인해 그를 태우기 위해 달려온 용마가 발길을 돌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한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은 아기장수와 용마와 같은 존재가 주었던 희망에 속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다림’의 방식을 추구한다. 즉 아기장수도 용마도 더 이상 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시대임에도, 사람들의 끊임없는 열망은 “이야기 속의 꿈과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로 변주하여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구적인 꿈에 지나지 않는 비극적인 아기장수 이야기는 오히려 사람들의 소망 속에서 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주는 구실을 한다. 즉 아기장수의 비극성은 다시 또 다시 이야기됨으로써 ‘한풀이’를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여는 토대로 수용된다.<sup>22)</sup> 그것은 이 작품이 제주4·3항쟁과 5·18광주항쟁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여 어떻게 역사 속의 이픔을 씻기고 새로운 화해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소중한 씨앗으로 민중들의

21)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열림원, 2003, 204-205면.

22)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비극적 사건 자체에 있기보다 이후의 이야기화(說話化)와 그 서사의 전승 과정 쪽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아닌 앞서의 한풀이 과정이다. 사람들은 이야기 속 아기장수의 비극을 자신의 일로 슬퍼하고 억울해하며 애석해하고 원통해한다. 그만큼 깊은 회한과 죄의식 속에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며 또 다른 구세주 아기장수의 도래를 기다린다. 그럼으로써 당대적 삶의 아픔과 슬픔을 삭여 넘고 그 소망 속에 삶을 계속 견뎌 나간다. 아기장수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풀이가 되고, 자신의 원통함과 후회스러움과 면면한 소망을 실어 그 이야기를 뒷세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새 구세주의 출현을 기다림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된 것이다.”(이청준, 『한국의 삶과 ‘한’의 정서』, Bulletin 『한(恨)과 미(美)와 공생(共生)』(Vol. IX), University of Tokyo Center for Philosophy, 2007, 9, 19-20면)

간절한 ‘기다림’을 제시하고 있는 주제의식과 겹치고 있다. 이청준의 아기장수는 앞에서 읽어본 김승옥, 최인훈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현실체제에 대한 환멸을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래의 구원을 기다림 속에서 이야기기하는 소망 속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변별적이다.

아기장수 설화를 각각 다른 맥락에서 변용하고 있는 김승옥의 단편 「역사(力士)」, 최인훈의 희곡 「옛날 옛적 휘어이 휘이」, 그리고 이청준의 장편 『신화를 삼킨 섬』은 모두 아기장수 설화의 비극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김승옥의 「역사(力士)」는 서씨라는 비극적인 인물을 통해서 장수로서의 삶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비극적인 현실상황을 드러낸다. 아기장수의 힘을 겨우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서씨의 기괴한 행동은 인간존재의 소외된 상황을 비극적으로 드러내고 현실비판의 강도를 높인다. 다음으로 아기장수 이야기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최인훈의 「옛날 옛적 휘어이 휘이」는 지금 여기의 비극적인 조건과 황폐한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다. 즉 지금 여기의 현실이 아기장수와 같은 영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지라는 것과, 아기장수에 의한 구원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환멸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아기장수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비판적인 역사인식과 새로운 기다림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이청준의 아기장수는 구세주에 의한 타율적인 구원의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운명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것, 그럼으로써 새로운 세계로의 열림을 지향한다. 그의 문학론도 이와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 4. 반성과 과제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설화인물 ‘처용’과 ‘아기장수’를 변용하고 있는 60년대 이후 모더니즘 문학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가들의 감성적 차이에 따른 전통 변용 양상과 그 속에 드러난 비극성의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동일한 시대경험의 지평에서 전통의 수용 양상을 비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였기에, 세세한

작품분석을 겸하지 못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4월혁명을 겪은 일군의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전통적 모티프의 변용 양상을 시대적인 조건 위에서 읽고, 전통을 변용하는 작가들의 변별적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읽어본 것처럼 이들의 작품은 모두 설화인물 처용과 아기장수의 이야기에서 인간존재의 비극성과 현실세계의 폭력성을 읽어내며, 한편 세계와의 불협화음 속에서 화해, 미래에의 구원이나 유토피아의 불가능성을 동시에 그려낸다. 김춘수와 김현의 처용, 그리고 김승옥, 최인훈, 이청준의 아기장수는 다층적인 맥락에서 변용되고 있지만, 원형적인 이야기의 비극성을 토대로 현실비판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 그들의 작품에서 수용된 처용과 아기장수 이야기는 목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색채가 짙은 전통 모티프라 할 수 있는데, 60년대 이후 이들 작가들이 설화인물 처용과 아기장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4월혁명과 5·16군사쿠데타의 연속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극도의 상실감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다림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즉 그들은 처용과 아기장수의 원형적인 이야기가 지닌 비극성을 시대적인 지평 위에서 공감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비극성과 구원, 유토피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실천적인 영역으로 옮겨놓았다는 데에 그들의 작업이 지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들 작가들에게 설화적인 인물과 서사는 초월적인 기의로서가 아니라 비극적인 세계상의 징후를 읽어내는 매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작품에서 전통적인 모티프는 자본주의적 근대의 문제점을 성찰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은 60년대 이후 자본주의 근대화론에 대한 모순과 폭력적인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가짜 구세주, 이데올로기, 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미학적인 비판을 수행한다.

앞서 본 대로, 작가들은 4월혁명이라는 공통의 시대경험을 밑바탕으로 하면서도 다른 미적 태도로 동일한 전통적 모티프를 다층적인 맥락에서 변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전통은 어떤 고정된 실체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감성에 의해 새롭게 견인되어 미학적인 상상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 변용 양상에 담긴 비극성의 시대적 의미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어진다면 작가들의 작품세계에서 전통이 어떠한 맥락으로 변용되고 있는지를 개별 작가들의 감성과 상상력의

차이에 따라 조명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시대적 맥락에서 살피는 일이 좀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리얼리즘 문학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6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있어서 전통수용 논의가 더욱 풍부해지리라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처용, 아기장수, 60년대 모더니즘, 4·19혁명, 전통, 전통의 변용, 감성, 시대, 상실, 기다림, 비극성, 비극적 세계인식.

<참고문헌>

1. 자료

- 김승옥, 「역사(力士)」, 『무진기행』, 문학동네, 2004.
- 김춘수, 『김춘수 시전집』, 현대문학, 2004.
- \_\_\_\_\_, 『김춘수 시론전집1』, 현대문학, 2004.
- \_\_\_\_\_, 『김춘수 시론전집Ⅱ』, 현대문학, 2004.
- 김 현, 「잃어버린 처용의 노래」, 『자료집』(김현문학전집16), 문학과지성사, 2005.
- 이청준, 「아기장수의 꿈」, 『광대의 가출-이청준 산문제』, 청맥, 1993.
- \_\_\_\_\_, 『신화를 삼킨 섬』(1.2), 열림원, 2003.
- \_\_\_\_\_, 「한국인의 삶과 ‘한’의 정서」, Bulletin 『한(恨)과 미(美)와 공생(共生)』(Vol. IX), University of Tokyo Center for Philosophy, 2007. 9, 13-21면.
-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최인훈전집10), 문학과지성사, 2003.
- \_\_\_\_\_, 『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3.

2. 논저

- 강진호·이상갑·채호석 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235-287면, 393-444면.
- 김 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문학과지성사, 2003, 223-247면.
- 김환희, 「설화와 전래 동화의 장르적 경계선-아기장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7, 45-81면.
- 나경수, 「처용가의 서사적 이해」,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217-243면.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소명출판, 2007.
- 손필영, 「최인훈 희곡,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연구-한국 시극의 가능성을 위한 서설」, 『한국연극연구』 3집, 한국연극사학회, 2000, 145-170면.

- 송상일, 「60년대, 시민문학의 형성」, 『시대와 삶』, 문장사, 1979, 96-108면.
- 송효섭, 『초월의 기호학-뫼토스와 로고스로 읽는 『삼국유사』』, 소나무, 2002, 115-130면.
-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103-127면.
- 이윤옥, 「넋의 문학 : 우리 마음속에 아기장수 기르기」, 『비상학, 부활하는 새, 다시 태어나는 말』, 문이당, 2005, 265-292면.
- 이혜원, 「좌절된 힘의 의미 : 아기장수 전설의 현대적 변용양상」, 『어문논집』 32집, 민족어문학회, 1993, 397-412면.
- 일 연, 이가원·허경진 역, 『삼국유사』, 한길사, 2006, 167-171면.
- 임동환, 「무의미 시론과 “처용”과 “천사”의 변주」, 『시학과 언어학』 8집, 시학과 언어학회, 2004, 35-62면.
- 최래옥, 「아기장사 전설의 연구-한국설화의 비극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1집, 민속학회, 1979.9, 117-161면.
- 최원식·임규찬 편,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19-67면.
-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50집, 민족어문학회, 2004, 287-325면.
- 현길언,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제주 아기장수형 전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17·18집, 한국언어문학회, 1979, 289-306면.
- H. 로베르트 야우스, 김경식 역, 「모더니즘의 문학적 과정」, 『미적 현대와 그 이후-루소에서 칼비노까지』, 문학동네, 1999, 85-130면.
- L. 보이아, 김웅권 역, 『상상력의 세계사』, 2000, 동문선, 14-69면.

[Abstract]

## The Tragic of Variations on Chu-young and Agi-Jangsu tale on Modernist works in 1960s and after

Han Soonmi

This study addresses the phase of variations according to the writers' sensitivities, and periodic meaning of the tragic through examinations of modernist variations on Chu-young and Agi-jangsu tale written in 1960s and after.

Chu-young poems of Kim Choon-su reflect the feeling of loss which is triggered by juvenile trauma and violent ideology with various viewpoints. For Kim, the possibility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remains far off because the theme constantly arouses the tragic pain. Therefore, Chu-young theme of Kim is periodic indication which reveals crisis on human existence and feeling of loss and nihilism. And *The Lost Song of Chu-young*, the trial work of Kim Hyun also has same context.

This study also considers *Youk-sa* by Kim Seung-ok, *Long Time Ago Whu-a Whu-i* by Choi In-hoon, and *An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as variations of Agi-jangsu tale and focuses on their sharing the tragic theme. For the first, in *Youk-sa*, the main character Seo shows the reality that needs and accepts no warrior. The endeavor Seo makes to maintain and keep his power looks eccentric and by presenting isolation of individual, it criticizes the reality based on capitalism. Secondly, *Long Time Ago Whu-a Whu-i* displays tragic condition and barren reality of here and now. So as to say, the reality is not able to accept a hero like Agi-jangsu and led to disillusion that the possibility he can

save society is slim. For the last, *An Island That Swallowed a Myth* presents pursuit of critical history-cognition and realms of possibility. Agi-jangsu in Lee's work heads to no salvation that is solely done by savior, but to open space of possibilities that exist in the people's lives and destinations they take.

As mentioned above, these writers vary the traditional theme and common periodic experiences, such as April 19 Revolution, into multiple context. They don't take the tradition as definite one but as basis of aesthetic imagination within the sensitivity of the time. For further study, it would be possible to sort the phases of variation by thorough consideration on each writer's sensitivity and imagination, and then to place it under the context of the time.

**【Key words】** : Chu-young, Agi-Jangsu, Modernism in 1960s, April 19 Revolution, Tradition, Variation from tradition, Sensitivity, Time Period, Loss, Waiting, The tragic, Tragic perspective on world.

---

한순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specialcloud@naver.com

---

이 논문은 2009년 7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9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